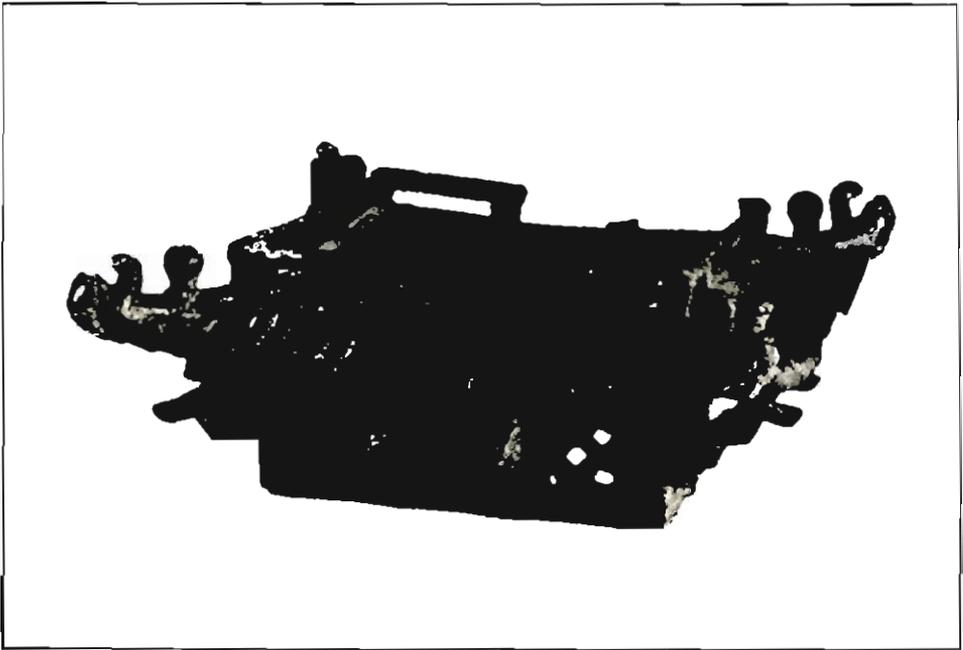


速記界

第 24 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3	國際舞臺로의 進出	會 長 朴 權 欽
5	《 詩 》 우리 勞動으로	權 龍 大
6	■ 集 輯 · INTERSTENO 加入 ■	
6	⊗ 제 35 차 Intersteno 總會 參觀기	趙 永 昌
9	⊗ INTERSTENO 總會 參席報告	理 事 長 申 世 華
15	⊗ INTERSTENO 加入을 축하합니다	
18	✻ 원로를 찾아서 ✻	
	速記는 내 人生의 목적인데……	
	- 서울식 창안자 姜駿遠선생님 -	
24	◊ 다시보는 速記錄 ◊	
24	우리땅에서, 우리 손으로	
	- 南朝鮮過渡立法議院開院式 -	
27	《 특별좌담 》 英國速記人들과 함께	
32	⊗ IPU 落穗	편 집 위 원 회
33	《 旅行記 》 가난한 친구 - 네팔	宋 基 喆
37	◎ 소식란 ◎	편 집 위 원 회
40	⊗ INTERSTENO 규약	
43	⊗ 會務日誌	總 務 部
44	⊗ 제 16 회 定期總會	總 務 部
	23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26 會費納付案内	
	31 고문추대	
	53 速記料金案内	





國際舞臺로의 進出

會長·國會議員 朴 權 欽

세모에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貴賓 여러분과 速記人 통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할 드립니다.

충격에 충격을 거듭해서 지금까지도 뛰는 가슴을 억누르기 어려운 1983 년도가 저물고 이제 새 희망과 기대에 가득찬 甲子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 보면 KAL 機擊墜事件 버마暗殺事件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이 엄청난 국가적인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했을 뿐아니라 이를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세계속으로 웅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内外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기에 지난 7월 스위스의 루체른에서 열린 Intersteno 제 35 차總會에서 大韓速記協會가 會員國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진작 이런 自祝의 모임을 가져야 마땅한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해를 넘기기는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速記는 그야말로 半世紀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協會가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던 Intersteno에의 가입,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이루지 못하던 차에 지난 7월에 마침내 가입이 되고 大韓速記協會會長인 이 사람이 國際速記聯盟의 中央執行委員으로 선임까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오직 會員 통지 여러분들의 오랫동안의 집념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禹炳奎 國會事務總長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ntersteno 는 1887 년에 創設되어 英國 런던에서 제 1 차 創立總會를 가진 이래 약 100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傳統이 깊은 國際民間機構입니다.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주로 유럽地域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그 會議의 公式言語가 獨逸語와 佛語밖에 사용하지 않는 상당히 東歐色이 짙은 그런 國際機構였습니다. 會員國은 24 個國이고 참가인원이 826 명에 이르렀는데 지난번 제 35 차 루체른총회에는 會員들이 거의 다 참석할 정도로 아주 성황을 이루었고

이 다음 회의는 84년 5월경에 中央執行委員會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리게 되고, 제 36차 총회는 85년에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聯盟에 加入이 되어서 會議에 참석해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民間外交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機構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速記人들은 이 國際機構에 가입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國際速記界는 특히 美國같은 나라에서는 速記가 機械化 단계에 들어가 있고 速記를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동시에 文字化되어 나오는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國際機構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하여 국제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한국 速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速記人은 國際舞臺에 나가서 世界의 여러 先進國 速記人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前進할 수 있는 바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日本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자체의 文字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체의 言語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速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速記人 동지 여러분들이 한층 더 분발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한국 速記界가 되도록 각자 노력할 것을 이 기회에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Intersteno 에 가입하는 과정에 美國 日本 獨逸 등 友邦國 代表들의 많은 도움을 얻어서 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大韓速記協會會長이 된 뒤에 이와같은 國際舞臺로의 진출이 이루어진 것을 저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速記界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동지 여러분들께 다짐합니다.

새해에는 동지 여러분들이 더욱 더 건강하시고 동지 여러분들 가정마다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2년 12월 27일

- Intersteno 加入 自祝宴 인사말씀 -

《詩》

우리 勞動으로

— 새해 速記家族들에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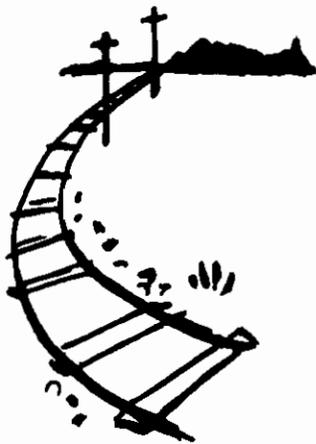
權 龍 太

甲子의 아침,
새해의 닷을 올리고
우리 勞動으로
해뜨는 豐饒의 바다를 향해
所望의 航海를 떠나야 한다.

때로는
삶의 倦怠가
우리의 허리를 휘감고
停滯의 늪속으로 빠져들지만,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
어둠을 헤치고 떠나야 한다.

우리 勞動으로
일구운 荒地의 풀잎처럼
이 時代의
同伴者로,
證人으로,
先驅者로,
우리의 領地도 넓혀져
Intersteno의 旗를 세웠나니,

올해는 우리에게
叡智와 信念의 糧食을 나누며
攝理속에서
忍從을 배우며,
勝利의 한해가 되도록 하자.



(詩人·國會文公委員會 立法審議官)

제35차 INTERSTENO總會 참관기

趙 永 昌 (배화여전교수·영문학)

중강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때였지만 출발하던 7월 12일은 더욱 바쁜 하루였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 아직 남아있던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땀겨나 흘린 날이었다. 공항에서 속기인들의 반가운 얼굴을 대한 가벼운 흥분도 잠깐 동안 뿐 그곳에서도 덜 처리된 일이 나를 몹시나 당황케 하였다. 비행기 여행은 신희여행 때 잠시 해본 경험밖에 없는지라 근 하루나 걸린다는 스위스행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국내 여행쯤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제 시간에 이륙하는 비행기 속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朴權欽會長님과 申課長님은 여러번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 여유가 있어 보였고 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몸에 배지 않은 여유인저라 처음 보는 機内の 아름다운 아가씨의 각별한 신경쫄도 내겐 그리 편하 느껴지지는 않았다. 높은 어른과 同行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그리 익숙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의의 參席目的이 대국적으로 보아서는 국제연맹의 가입에 있었지만은 내 개인의 부차적인 목적은 가입에 있어 조그마한 힘이라도 더한 뒤 같았던 英國을 둘러봄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쭈리히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처음의 내 계획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英國行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쉽게 할 수 있었다. 스위스 주재 安大使 및 KAL 직원들이 영접을 나와 주셨는데, 도착하면 면세점에서 쌀 양주를 한 병 사려고 했는데 그 기회마저 놓쳐버린 데서부터 일은 처음 생각과는 하나 들썩 빗나가고 있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했지만 든든한 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쭈리히에서 一泊을 하고 會議의 개최지인 루체른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날도 安大使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에 편안히 목적지에는 도착했으나, 당초 예약을 했던 호텔이 우리네들이 생각했던 곳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렇듯 아주 쉽사리 일이 빗나가고 있음을 어찌랴. 나는 여기에서 東西의 사고방식 속의 개념도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보다는 못한 곳이어서 申과장님과 나는 會長님을 보다 나은 곳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 그곳은 그림에서나 보던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1주일이나 보내게 되었다는 생각에 소년처럼 가슴이 부풀었다.

7월 16일 대한속기협회의 국제연맹에의 가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던 중앙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영어권에 속한 국가의 대표들이 상당수 참석을 하였음에도 그들은 불어와 독어만으로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아직도 경계를 제외한 분야에서 유럽인들의 콧대가 높음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마음씨 좋아 보이는 폴란드 대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회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

회의의 분위기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여러 상황을 초월하여 마치 잘 아는 친구들의 모임인 양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해지고 있음을 보고 처음엔 정말 놀랐다. 또 기계속기에 대한 시범을 미국 대표와 불가리아 대표들이 보여 주었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느낌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물론 字母의 차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여전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일이 밀렸을 때 쉬지 않고 써도 별로 분량이 출지 않는 수고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속기도 기계가 하고 번문도 기계로 하는 이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은는지?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다운 그곳이었지만 남은 시간을 보내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았다. 관광도시로 발달된 곳이어서 엄청난 高物價는 어렵게 획득한 우리의 달러를 더욱 쓰기가 어렵게 했다. 그래 고작 엄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몇 장의 그림엽서를 사서 몇 자 적는다든가 이리 저리 다니면서 눈요기를 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朴權欽회장님께서 INTERSTENO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임된 뒤 임원진과 함께〉

첫날 中央委員會가 끝난 후 朴權欽會長님은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만찬을 베풀었는데 安大使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더욱 그 모임을 빛내 주셨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서로를 형제처럼 생각하는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위원들 중에는 박사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단순한 속기술만을 갖춘게 아니라 상당한 교양과 자신의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그들을 보고 우리네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그들의 수준을 능가하는 속기인들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간절함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나 지금은 현역에서 물러난 머리가 허연 독일인이 여전히 속기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속기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부러운 광경이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풍토가 조성이 될 것인지…….

현재 나 자신도 그간 애써 익힌 속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고는 있지만 속기에 대해 갖고 있는 긍지는 여전하다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山水를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또한 멋진 경관을 가진 自然을 허락하신 듯 싶다. 해마다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수만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알프스산맥이 가로지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이름난 山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가본 산은 필라투스 와 티틀리스 역곡이었는데 특히 융프라우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山이어서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었다. 융프라우行 高山鐵道는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폭포를 지나 파란 잔디밭처럼 보이는 草地를 거쳐 위로 위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하얀 눈이 그림처럼 쌓여 있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 회의에 모인 그들의 속기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우리네 속기인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긍지와 자부없이는 속기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열기도 없을테니까.



INTERSTENO

總會 參席報告

理事長 申 世 華

언저 大韓民國 速記界의 總集結體인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가 INTERSTENO 의 National Group 의 一員으로 加入하기까지 物心兩面의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朴權欽회장님과 會員 여러분들의 協조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本協會는 同國際機構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國威宣揚과 아울러 民間外交활동의 一익 담당, 速記文化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의 情報交換, 議會및 각종 速記業務의 改善方法을 연구하고자 1980年부터 同聯盟 事務局 및 任員을 비롯하여 美國 日本 등 各國의 速記界와 書信連絡등으로 韓國의 가입문제를 교섭하여 온 결과 1982年 8月 同聯盟 中央執行委員會에서 韓國의 加入案을 第35次 總會에서 제안할 것을 滿場一致로 결의하였다는 通知를 받은 후 1983年 3月 同聯盟 組織委員會로부터 總會參席招請狀과 프로그램을 받아 1983年 7月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한 第35次 總會에 참석하게 되었다.

一. INTERSTENO 概要

1. 性格 ; 國際速記打字聯盟 (INTERSTENO) 은 經濟 社會 文化 教育 등 各 분야에서 速記에 관계하는 全世界 速記人의 결속, 情報交換, 研究報告, 親善圖謀과 速記人의 權益伸張을 강구하는 國際機構임.
2. 沿革 ; 1887年 런던의 第1次 總會 이래 1983年 35次 總會에 이르고 있는 순수 民間團體임.

* 參照 : INTERSTENO 總會 沿革表

차	개	최	지	년	도	차	개	최	지	년	도
1	런		던	1887		4	베	를	린	1891	
2	파		리	1889		5	시	카	코	1893	
3	문		헨	1890		6	스	톡	홀	1897	름

차	개최지	년도	차	개최지	년도
7	파 리	1900	22	마 일 란 드	1957
8	브 뤼 셀	1905	23	빈	1959
9	담 슈 타 트	1908	24	비 스 바 멘	1961
10	마 드 리 드	1912	25	프 라 하	1963
11	부 다 페 스투	1913	26	파 리	1965
12	스트라스버그	1920	27	베 를 린	1967
13	드 레 스 덴	1922	28	바 르 쇼 우	1969
14	로 칸 느	1924	29	브 뤼 셀	1971
15	마 일 란 드	1926	30	발 렌 치 아	1973
16	브 뤼 셀	1927	31	부 다 페 스투	1975
17	부 다 페 스투	1928	32	로 테 르 담	1977
18	파 리	1931	33	벨 그 라 드	1979
19	암 스 텔 담	1934	34	만 하 임	1981
20	런 던	1937	35	루 체 른	1983
21	모 나 코	1955			

3. 加盟國 ;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모나코 서독 네델란드 동독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자마이카 체코 日本 터어키 헝가리 美國 오스트레일리아 大韓民國 (서방권 17 個國 동구권 7 개국), 기타 個人資格會員 다수

二. 第 35 次 INTERSTENO 總會

1. 한국 대표단

가. 참가목적 : 한국의 INTERSTENO에의 가입 활동

나. 기 간 : 1983. 7.13 ~ 7.22

다. 대표단구성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회장 朴權欽 이사장 申世華 회원 趙永昌

2. 參加國 및 人員 ;

24 個國 826 名 (Congress 참석자 372 명 速記경연자 164 명 타이프경연자 251 명 기타 39 명)

3. 총회 일정 및 내용

일 자	주 요 주 제	내 용
7.15	회의준비	
7.16	중앙위원회 1차회의	1. 규약개정 2. 가맹자 * 대한민국 그룹 가입승인에 관한 확인 3. 1984 중앙위집회 및 1985년도 총회참석 경비에 관한 건 (National group 총회참석자 一人當 40 마르크 개인 60 마르크) 4. 한국대표단 박권흠의원 중앙집행위원 으로 선임.
	개회식	1. 각국 대표 연설
7.17	○속기 및 타자 경연대회 ○각국의회속기사 회의	
7.18	○A·B 그룹속기경연대회 ○관광 (필라투스山) ○루체른 시장주최 중앙위원 및 심판위원 환영 리셉션	
7.19	○관광 (티틀리스山) ○중앙위원회제 2 차 회의	의제 : 1. 1983년 회의 의사록 통과 2. 루체른 총회의 정보 교환 조직위원회 보고 심사위원장 보고 대회 개최중의 책임자 보고 3. 연맹활동 보고 (1) 회장보고 (2) 사무국장 보고 4. 규약개정 5. 회계감사보고 6. 가맹자 보고

일 자	주 요 주 제	내 용
		7. 1985 년도 총회지 결정 8. 회의 준비 중앙위원, 회장, 부회장, 회계감사역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보고 9. 1984 년도 중앙위원회 회의
7.20	각종연구 발표회	1. 속기 및 타이핑 사무기술의 교육목적 2. 기록자(속기사)의 훈련 3. 의회속기업무의 기능과 구조 4. 속기록 정정의 원칙
7.21	연구발표회 총 회	1. 비서업무의 현재와 미래 의 제 : 1. 대표자 호명 2. 사무총장 보고 3. 회장 보고 4. 보고서 토의 및 승인 5. 신 중앙위원 소개 (한국 박권흠의원 소개가 있었음) 6. 선 거 회 장 : 불가리아 대표 당선 부회장 : 5명 선출 회계감사역 선거 사무국장 선거 (독일대표 Gutzler 씨 재선) 7. 규약개정 8. 가맹자 통과 (한국 가입안 만장일치로 통과) 9. 1984 년 체코 중앙집행위원회 1985 년 불가리아 소피아 36 차 총회 계획 통과 10. 신임회장 및 임원 인사 11. Marcel Racine 前회장의 명예회장추대

4. 活動狀況 및 成果

가. 韓國의 加入을 위한 活動

○ 韓國代表團 朴權欽會長등은 總會開會前 7月15日에 INTERSTENO 會長 스위스代表 Marcel Racine, 事務總長 Dr. Karl Gutzler 씨를 면담하여 그 간의 교섭경위 및 韓國加入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였 으며 그들 역시 韓國의 加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음.

○ 7月16日 中央執行委員會 開會前에 各國代表團을 일일이 면담 韓國의 加入에 적극 지지하여 줄 것을 확약받음.

○ 7月16日 會長 Marcel Racine 내외분, 事務總長 Dr. Karl Gutzler 내외분, 日本代表 田鎖씨 등 3名, 美國代表 Harry Foster 내외등 韓國의 加入에 대하여 그간의 書信交換등 협조해준 분들을 모시고 만찬을 베풀었음.

同席上에서 우리 일행은 同日 開催된 中央委員會에서 朴權欽議員을 中央委員으로 선출해준 점 및 韓國의 加入에 대한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韓國의 速記界, 한글문자, 韓國의 諸般優越性 등을 설명하였음.

특히 同 만찬에는 스위스 駐在 安在碩大使가 참석하여 民間外交의 측면에서 큰 활약이 있었음.

○ 6.25 동란에 관한 통신을 速記했던 UN事務局 속기사가 본 대표단의속 소를 방문하여 당시 安保理事會의 상황을 들려 주고 韓國의 발전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 기타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韓國의 INTERSTENO 加入을 환영한다는 개별적인 인사를 받았음.

나. 成 果

○ INTERSTENO에의 韓國加入 ;

加入會員國 滿場一致의 찬성과 박수로써 韓國의 國際速記打字聯盟加入이 可決됨.

○ 朴權欽議員 中央執行委員으로 被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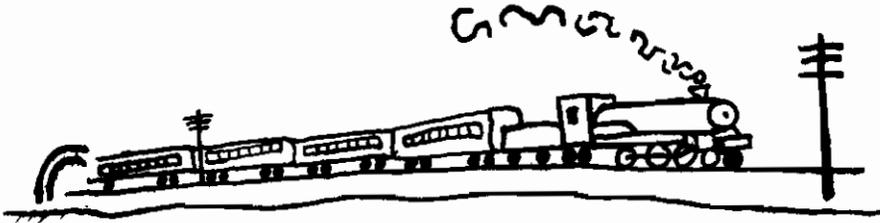
中央執行委員會 및 總會에서 韓國의 速記界 및 朴權欽議員의 소개와 동시에 滿場一致로 同中央執行委員會 委員으로 選出됨.

○ 英·佛·獨語등 國際通用語 速記만 존재하는 것으로 一般常識化되어 있는 西歐地域의 速記人代表들에게 韓國固有言語에 대한 速記의 존재를 인식시킨 점은 물론 韓國이 同聯盟에 가입함으로써 韓國速記界가 國際무대로 진출함과 더불어 民間外交의 礎를 마련하였음.

5. 고려사항

가. 中央執行委員會 및 總會參席을 위한 經費調達問題에 대한 對策의 수립.

나. 先進國의 速記業務 컴퓨터化 추세에 발맞추어 이를 위한 先進諸國과의 情報交換 및 人的 交流의 확대방안.



사무관리분야 검정안내 (속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83년 12월)으로 인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시행하던 사무관리분야(주산, 부기, 타자, 속기)에 대한 검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이미 발급한 자격증은 그대로 인정하며 1984년 1월 1일 이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변경사항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사오니 자격심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802 ~ 2156, 2472)

83년도사무관리분야(속기) 검정시험 현황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시행-

시행일	응시자	합격자	내용
7월 2일	208	3	4급 1명, 5급 2명
12월 3일	297	11	1급 2명, 2급 2명 4급 1명, 5급 6명

INTERSTENO 加入을

축 하 합 니 다.

癸亥년도 마지막 저물어가던 12월 27일(화) 저녁 6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퀴빈 식당에서는 朴權欽 회장이 마련하신 대한속기협회의 INTERSTENO 가입 自祝宴이 조촐히 베풀어졌다. 천지를 뒤덮은 하얀 눈 속을 교통의 불편을 마다않고 전국 각처에서 달려온 속기인들은 오랜만의 만남에 서로 인사를 나누기에 바빴고 진심으로 대한속기협회의 발전을 경하해 마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朴權欽 회장을 비롯하여 金鍾河 국민당총무, 金炯來 민한당의원 禹炳奎 국회사무총장, 趙琮鉉 국회도서관장 등 그동안 본 협회의 성장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고 속기인들의 힘으로 성취한 국제적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커다란 찬사를 보내주셨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鄭成謀, 李琪喆, 文甲碩 등 본 협회의 고문들도 참석하여 본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다짐하였다.

아래에 이날 참석하셨던 인사들의 축하 말씀을 실는다.

○ 金鍾河의원 (국민당원내총무)

우리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더 빛나게 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속기인 여러분들입니다.

제 마음 속에는 늘 그늘 속에서 일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고 또 형제와 같은 다정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영광을 저도 같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대한속기협회의 INTERSTENO 가입을 축하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발전하시고 또 가정에 많은 복이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 禹炳奎 국회사무총장

정말 축하합니다.

대한속기협회가 INTERSTENO에 가입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사실 속기는 우리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는 말을 하는 데이고, 이 말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는데 여러분의 기여가 아주 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의미에게 본다면 그늘진 곳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특별한 보호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축하합니다

의 미래를 개척하는 입장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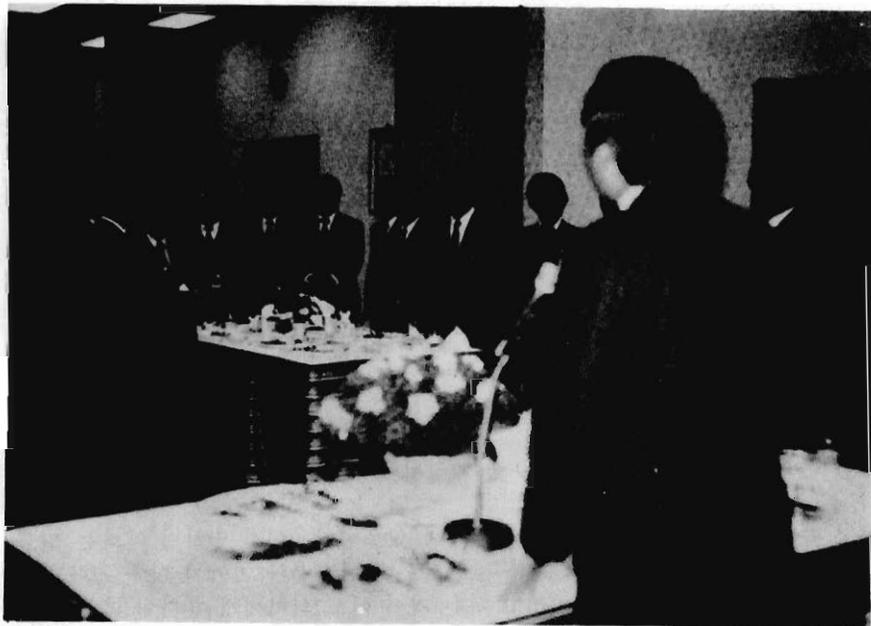
아무쪼록 국제속기기구에 가입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속기문화 창달과 속기술의 향상, 아울러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서 한층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金炯來의원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석한 것은 어떤 의원의 자격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과 나는 같은 가족의 입장에서 격려한다고 할까 축하하는 겸에서 왔던 것입니다.

내가 온 첫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바로 속기과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못전디게 어려웠던 그 뜨거운 울분을 감추면서 속기과 편집계에서 이 나라 의정의 일각을 더듬어 온 세월이 상당히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과에 관계된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항상 그게 바로 내 고향이며, 내 친정이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동지들이 자축하는 그 마당에 세모에 쫓기는 이 사람이지만 가서 얼굴을 뵈고 한 뭉에 인사드리고 축하 격려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공사간에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朴權欽 선배가 하시는 일이라 하면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반드시 그 옆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도로 여기를 왔읍니다.

그리고 셋째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음지에 있고, 국회의원들은 양지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들의 내면세계를 어느 의미에서는 안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본철학과 저 사람의 소신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무처 중에서도 속기과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말만 하면 으레히 애국애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참으로 여러분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기록해 가는 진실로 애국하는 또 하나의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기록을 항상 빠짐없이 남겨주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협회가 국제무대에 등록이 된 것은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 열강의 민주주의에 등록할 수 있는 계기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또하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특히 동양의 司馬遷이 남성의 기본까지 잘려가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겼던 사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록자이면서 고발자이면서 또 그것을 후세에 남기는 史官을 담당하는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어깨를 마주대고 일하던 金炯來가 그래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에 참여해서 남의 뒤라도 따라간다, 우리 속기과 직원도 앞으로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甲子年입니다.

60千支로 따져서 이 甲子年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는데 나라 일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들 공사간의 일이 항상 새롭게 알차게 보람스럽게 전개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速記는 내 人生의 목적인데……

서울식 창안자 姜駿遠 선생님



文法の 또 한 세계

- 저희들이 알기에 선생님 연세가 70이 넘으신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건강해 보 이십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내 나이 금년 71 인데 40년 넘어 아령을 계속하고 있지. 하루에 두 차례씩 … 그래서 팔목이 가늘기는 해도 한번 불끈 쥐면 쇠덩어리 같아. 그리고 위장 병이 없으니까 ….

- 저희가 뵈기에도 60대 초반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요즈음은 무슨 일을 하고 지내시는지요?

집에서 영어, 일본어 가르치고 있어.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연줄로 좀 찾아오지. 아무 시설도 없이 1대 1로 가르치고 있어. 그러나 좋은 책은 내가 만들어냈지.

- 선생님, 영어는 언제 그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영어는 일제시대 속기 연구하느라고 Pitman 하고 Gregg 속기책을 사다가, 그때는 번역한 책이 없으니까 사전 찾아보면서 그것 풀이하느라고 애쓰다 보니 영어도 배운거지 (웃음).

-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학문적인 열정과 집념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신문기자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속기뿐 아니라 일본어 속기도 연구해 보고 또 Gregg 식 영어속기도 연구해 보았는데, 이렇게 속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속기적 문법」이라는 한 세계가 또 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어. 문법학자는 자기 문법만 하면 되지 속기하고는 상관없거든. 한데 속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문법하고의 결합은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왓 서울식을 창안했는데 이것은 매우 문법적이지. 문법 모르는 내 속기법 배울 수 없어요.

- 굉장히 조직적이겠군요?

그렇지. 그래서 主詞 助詞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조사는 은, 는, 가, 로, 에, 와 정도지. 그런데 내 속기법으로는 '에' 관하여, 까지도 조사입니다. 또한 '~'가 하게 되고, 는 位置語라 하고. 그런데 같은 계통의 언어로서 일본어 속기책은 웬만한 것 다 읽어 보아도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간 속기법이 없어. 아직까지도 없읍니다.

속기의 제 1보

- 사실 선생님께서 일제시대에 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말 속기법을 창안해서 가지고 東亞日報에 발표하시고 이런 것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해방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룰때면 우리나라 속기의 제 1보를 내디딘 것이 군정하의 과도입법의원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8.15 해방 되고나서 46년 9월께쯤인데 하루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입법의원 사무국장 전규홍이라는 분의 이름으로 속기사를 모집하니 속기에 능한 분들은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하고 朴寅泰씨 金天漢씨 등 몇몇 친구들이 한국속기학회라는 공동연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말하자면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정에 협력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민족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여러가지로 의논한 끝에 일단 우리들이 하는 것은 기술이고 정치가 아니다, 또한 누가 하든지 이 기록은 남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니 기술연마도 할겸 참여해 보자, 이래 가지고 朴寅泰씨하고 나하고 전규홍씨를 찾아갔지. 갔더니 방송한 지 1주일이 넘는데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 걱정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회의 분량으로 보아 적어도 속기사 6명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의원 개최일은 11월 11일이니까 개최 당일부터 실패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마련해 보겠는데 부대조건이 있소 하나는 이 안에다가 속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基本給만 제공하고 연습을 시키는 속기사양성소를 만들면 장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우리들은 우리들

이 취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학술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게 좋습니다。」 했더니 「그것 참 좋다」 이래 가지고 입법의원 안에 속기사양성소를 두어 가지고 8명인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 속기 배우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었습니까?

그랬지. 좋은 세상이지(웃음).

- (웃으면서) 정말 좋은 세상인데요. 지금은 자기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월급은 커녕…….

그리고 전규홍씨에게 「미안하지만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욕심같지만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특별기술수당을 주어야겠소」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주는 기술수당은 그때 생긴거라구.

- 그러면 그때 속기사에 대한 대우가 일반직원하고 비교해서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내가 速記長을 했는데 理事官 대우야. 월급은 본봉이 3,000 환에 다 속기수당이 3,000 환…….

- 그러면 일반 속기사들은……?

일반 속기사들도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정도의 대우를 받았지. 거기다 수당까지 받았으니 다른 직원들이 무척 부러워 했지. 그래서 내가 6.25 때 총실에 처할 뻔한 명예(?) 를 차지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야. 이사관이면 고급공무원 이거든.

- 당시의 立法議院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立法議員중 반은 民選이고 반은 官選이야. 당시 군정장관이던 러어치의 생각은 한국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들이 모여서 「군정 당장 물러가라」하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군정을 지지하는 파가 최소한도 반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반은 관선이었지. 누가 뽑느냐, 金奎植박사가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뽑았지. 왓 절충파지.

- 그때 입법회의 의장은 누구였나요?

의장은 金奎植 박사지.

- 회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군정청, 지금의 중앙청이지. 그 안에 제 1 회의실에서 했지. 그리고 3층의 자방들은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 그러니까 입법의원이란 미국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자문기구같은 것입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과도정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미 한국 사람의 의견을 이만큼 모았지 않느냐? 이것은 과도정부다…….

- 그때 民選으로 뽑은 사람이 반이라면 직접 국민투표를 했습니까?

했지요. 하지만 하고 싶으면 와서 하고 안 오는 사람은 안오는 대로 그만이고. 우스운 얘기는 안 오는 사람이 3분의 2나 되었다는 얘기도 있어. 그 당시의 생각으로서는 아, 시골구석에서 버스 타고 거기 가면 밥 주나……

(일동 폭소)

- 그러면 당시 실무자들은 어떻게 속기를 했나요?

지금 국회 본회의와 똑같애. 발언자가 한 사람씩 마이크 앞에 나와서 발언하고 그 밑에 속기사가 있고 맨 위에 의장이 있고…….

- 그때도 여섯 분이 교대로 10분씩 썼습니까?

그렇게 못했어. 한 30분씩 했어. 인원이 모자라서……. 그때 분량이 많아서 번문하느라고 찢쩍 매었지.

- 입법의원 당시에는 직원이 대략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은 적어도 편제는 다 되어 있었어. 그게 다 일본것 따온 거지.

- 의사국 안에 속기과가 있었나요?

그때는 書記課라고 그랬어. 국회가 되면서 속기과가 됐지.

- 그러면 과도입법의원하에서는 6명외에 속기사를 더 뽑지 않았습니까?

한 1년 지난 후에 우리 6명은 수당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어. 그래 양성소에서 배우던 사람들이 기용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 6명은 후에 제헌국

회로 넘어와서 전규홍씨가 불러서 다시 들어갔지.

속기인이 존경받는 사회

- 선생님은 그야말로 한평생을 속기제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속기제의 발전을 위한 가장 당면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속기인들이 자 식을 학술적으로 상호 비판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으면 해요. 속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 全無한 상태 아니야?

- 그게 참 아쉬워요. 속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배우도 받는 상황이 돼야 할텐데 사회적 조건이 아직…….

이 사회에서 속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속기가 내 인생의 최대 목표로 알고 연구를 해왔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한국일보 다닐 적에 기사시험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명단을 빌려 가지고 속기 거저 가르쳐 줄테니까 오라고 안내장을 내봤어. 300 명에게 냈는데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 나 그때 실망했어. 대학졸업자들이 속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이런 풍토 속에서 속기라는 것 참으로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 그것은 속기를 단순한 기능 정도로 밖에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속기인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그래서 처음에 노동부에서 속기를 관리한다고 할때도 이상스럽게 생각했어. 문화단체의 한 분야로 들어가야지. 속기가 노동의 한 분야야?
(일동 폭소)

- 그런데 이번에 INTERSTENO에 가서 보니까 속기를 평생의 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회적인 지위가 완전히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 젊은이들 보다도 40 세 이상이고, 심지어 이번에 오신 분중에 80 이 넘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격과 소양을 전부 갖추어서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중에는 대학교수 하다가 속기하는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IPU총회에 온 외국 속기사들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한 사람은 신문 기자를 오래 하다가 속기사가 된 사람인데 속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훨씬 보람을 느끼고 생활도 안정되고 또 앞으로 자기가 그 일을 계속함으로써 만족감은 물론이지만 발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기자 하다가 와서 속기사 하라고 하면 팔짱 쥐고 미친 놈이라고 할텐데…… (웃음)

속기에 관한 책은 모조리 ……

나에게 2개월에 한번씩 全美速記士協會에서 잡지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최소한 한 州에 대표적인 속기학교가 하나씩은 있어서 그 잡지에 학생모집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상업학교에서는 으레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인식이 너무 안돼 있어.

- 그 잡지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2년에 한번씩 모았다가 중앙도서관에 기증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500권이 가 있는데……. 내 딸이 제 남편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로 해서 세계 일주해 올 적에 내가 읽을 줄은 모르지만 그 나라 서점에 들러서 속기책을 사보내 달라했더니 5~6개국의 속기책을 잔뜩 보내왔어. 그 책도 지금은 다 중앙도서관에 보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아무데나 옛장수한데라도 팔아버리면 곤란하잖아. 그 귀한 책을……. 덕분에 중앙도서관장으로부터 표창도 받았어.

우리나라 속기책도 거의 다 사모았는데 그리로 다 보냈지. 南○○씨 책도 아마 시중에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을 구해다가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것은 거의 다 읽어보았어. 나와 어떻게 다른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따져 보기 위해서…….

-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속기할 적에는 수입보다도 누가 써워주지는 않았지만 월계관을 쓴 것 같았어. 전국의 큰 역군임을 자부했었는데 요새 속기사가 과연 자부하는지… 물론 수고하는 만큼의 대우를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도 해결되리라 하고 봐요.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關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渉外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内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분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 (Counsellor) : 本協會渉外部 Tel 7802-2472, 2473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이 땅에 속기문화가 뿌리를 내린 지도 어언 40 여개 星霜, 그 동안 역사의 뒀안길에 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기록하여 왔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방대한 舊庫 앞에 섰때에 우리는 역사의 기록자로서의 회열을 억제치 못한다.

여기 그 역사의 기록들을 첫 권부터 다시 한번 열어 보고자 한다. *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2号

立法議院開院式

1. 時日 權紀 4279年12月12日12時

1. 處所 本院會議室

○ 事務總長 全奎弘 議員諸位及 來賓諸位

지금부터 南朝鮮過渡立法議員 開院式을 議長 金奎植博士, 在南朝鮮美駐屯軍司令長官 하이지中將及 在南朝鮮駐屯軍政長官代理 헬릭代將 美蘇共同委員會代表 부라운少將 出席하에 거행하겠읍니다.

지금 議長 하이지中將 헬릭代將 부라운少將이 입장하시겠읍니다.

(하이지中將 헬릭代將 부라운少將 입장)

(金奎植議長 議長席에 着席)

○ 議長 金奎植 지금 開會를 宣旨합니다.

(開會辭)* 오늘 權紀 4279年 12月12日12時(3개의 圓滿하다는 12의 數를 기억에 걸고) 韓國의 有史以來 처음으로 되어진다고 할 만한 이 立法議院이 成立되어 開院式을 함에 있어서는 그 意美가 막대한 것이오. 작

년 8月15日 이래 부분적으로라도 解放을 얻어 우리의 3,000萬 民族으로서는 전적으로 기쁜 감상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많은 期待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意義가 깊고 그 使命이 중대한 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엄숙한 開幕式에 昨日 本院準備會議의 결과로 본인이 議長으로 被選되어 금일부터 그 使命을 띄고 司會하게 된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면 萬萬不敢當이라 하겠고 본인 자신으로서 는 議員의 一席으로도 채우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内外情勢와 환경이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出席하기를 권하면서 자신은 不參加하기도 어려워서 각 방면 同志의 의견과 심지어 客觀의 정세에도 應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議長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어 부득이 諸議員의 의사에 奉종하여 微力을 供하려 한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이 立法議院은 명실 상부한 過渡立法議院인데도 初步的 過渡立法議院인 것을 本院의 現任 議員으로서는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初步的 立法議院의 使命은 最速한 期間 내에 南北이 統一한 總選舉式으로 被選된 擴大된 立法議院을 產出하는 第2 階段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擴大立法議院은 美蘇共同委員會의 繼續開會가 되면은 더욱 좋거니와 혹 어떠한 變換으로 급히 續開되지 아니하더라도 最速한 期間 내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臨時政府를 產出하여 안으로는 完全自主獨立의 國家를 建設해야 하며 우리의 主人인 韓國 3,000 萬 民衆의 福利를 도모할 것이며 밖으로는 國際의 地位를 획득하여 東亞 및 전세계 平和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民主主義聯合國과 協力邁進할 것이다.

本議院의 性能에 있어서 現금 情勢의 관계로 在韓美駐屯軍司令官 支配下에 있는 美軍政廳 第180號 法令으로 施設되는 것이지만 이 議院이 결코 美駐屯軍司令官이나 美軍政의 諮問機關으로 行使用할 것은 아니며 또 美軍政을 延長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南에 있는 美軍政이나 北에 있는 어떠한 軍政이나 그 存在를 短縮시키려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本院에서 여러 가지 급속히 法案으로 制成할 것 중에는 地方으로부터 國民自治制를 實行케 할 것이요, 軍政廳의 現재와 장래의 人事問題에 대하여 檢討 提案한다는 것보다도 일체 行政

權을 韓人으로서 移讓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는 제일 至急한 우리의 民生問題에 있어서도 상당한 措處를 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완전한 資格을 얻어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하며 우리에게 대한 法令制定도 우리의 손으로 하고 우리의 運命을 우리로서 自定하는 데 邁進할 것이다.

權紀 4279年 12月 12日 12時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 중략 -

○議長 金奎植 지금 하아지中將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심에 있어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할 것을 議長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번에 이 南朝鮮만이라도 이 立法議院이 이와 같이 產出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아지中將이 여기에 오셔서 美駐屯軍司令官의 책임으로 있는 중에 韓國獨立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우리의 獨立이 한결음이라도 더 빨리 촉진되고 하루라도 더 일찌기 되리라고 하는 祈念下에서 몇 달 동안 노력하신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임에 앉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아지中將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하아지中將 登壇, 일동 박수)

- 하아지中將 메시지 -

議長 金奎植 박사, 南朝鮮過渡立法議員 諸位, 南朝鮮良民 여러분,

이 立法議院開院은 南朝鮮에 있어

民主主義發展上 가장 중대한 단계요, 朝鮮自治促成의 제일 큰 步調라고 本官은 생각합니다.

이 立法議院은 南朝鮮民衆의 유일한 公器요 이 機關을 통하여 南朝鮮人民을 위한 人民의 自治力이 增強되리라고 本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중 략 -

지금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開院式에 보내는 美國國務長官代理의 祝辭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諸位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美國 사람들로서도 朝鮮國民이 이제 그들의 代表者들을 통하여 政治的 社會的 及 經濟的 희망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그 희망을 法律化할 수 있게 된

것을 同慶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太平洋方面聯合軍 最高司令官 다그라스 맥아더元師의 祝辭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同元師는 朝鮮으로서 가장 좋은 친구의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祝賀文은 이려합니다.

南朝鮮 여러분의 立法議院이 새로 생기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本官은 이것을 民主的 自治過程에 있어 제일 進歩된 步調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機關의 성공을 誠心으로 祝願합니다.

(일동 박수)

- 하 략 -

(*는 편집자注)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의 회비납부에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편대체구좌(532689)를 마련했아온 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500 원 (年 6,000 원)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英國 速記人들과 함께

때 : 1983. 10. 13. 18:30

곳 : 石鼎 (한식집)

記錄 : 金 珠 成

◎ 參 席 者 ◎

理事長 申世華 總務理事 崔 滉 洙 渉外理事 宋 基 喆
事業部長 金正德
會員 金珠成 洪淳寬 李承哲
Jim Gourley, Ian Church

* 편집자 注 ; 第 70 次 서울 IPU 總會事務局 要員中에 英文速記士 3명, 佛文速記士 3명이 同行하였는바 本協會에서는 그중 英文速記士 2명과 對話의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韓國의 速記界를 紹介하고 또한 그들의 速記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外國의 速記界 특히 유럽地域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全無한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아래에 그들과의 座談會를 要約 揭載한다.

申 우리가 IPU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자자 소개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자기 소개 및 인사)

Jim 저는 速記錄編輯長補 (Principal assistant editor)로 英國下院 速記局에 勤務하고 있는 Jim Gourley 입니다. 速記經歷은 20年 정도이며 그 전에는 News Agency (通信社) 記者로 13年間 勤務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Ian 저는 英國下院議會速記士 養成所長의 責任을 맡고 있는 Ian Church입니다. 議會速記士가 되기 전에는 London Times에서 記者로 있었습니다. 速記勤務經歷은 21년이 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申 그러면 앞에 있는 한국음식을 드시면서 궁금한 點을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물어보도록 하지요.

崔 Gourley 씨, 韓國에 와본 일이 있습니까?

Jim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崔 韓國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Jim 韓國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경주를 가보았는데 고적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IPU 會議場의 施設은 훌륭했습니다.

宋 서울에 있는 동안 한국음식을 먹어 보았습니까?

Ian 공식적인 파티에서는 한국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행히 오늘 초대해 주셔서 비로소 먹어보고 싶었던 한국의 고유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洪 그런데 英國議會內에 速記士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Jim 主任速記士 9名, 速記士 17名 都合 26名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成 저회 議會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무량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

Jim 主任速記士는 本會議에 주요토론(main debate)에만 직접 들어가서 속기를 하고 常任委員會는 들어가서 직접 속기를 하지 않으며 발언자의 이름, 법안 제목과 속기하기에 난해한 부분등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의 발언이 녹음되어진 테이프를 번문사(transcriber)에게 넘겨서 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임속기사는 직접 속기를 하지는 않고 副編輯長으로서 보다 높은 지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가 맡은 委員會 회의록 작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洪 번문사라는 제도는 저회 의회에서는 생소한 말인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an 저회 議會는 현재 25명의 번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 會議場에 들어가 속기는 하지 않고 다만 주임속기사의 감독하에 녹음된 테이프를 가지고 번문을 하는 일에 종사하며, 둘째 번문을 하지않는 시간에는 타이피스트나 또는 복사 등 제반 속기보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德 速記法式 및 속기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Ian 英國은 현재 Gregg 식보다는 Pitman 식이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고 속기교육은 實業學校나 비서양성기관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회내에는 下院內에 양성소가 있으며 속기교육과정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180 단어를 속기할 수 있는 4명과 분당 160 단어를 속기할 수 있는 몇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음주에 분당 200 단어 수준의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의회내에서 근무하려면 속기수준은 분당 160 단어 정도를 기록할 수 있

으면 주임속기사의 감독하에서 실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양성과정에서 速記術보다는 의회속기사로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얼마 전에 호주의 의회속기사가 저희 下院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분이 速記術은 뒷할 것이 없을 정도로 능숙했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議會速記士로서의 자질에 많은 점이 결핍되어 있어 2년 동안 직장내 훈련을 받고 정식 속기사로 채용된 적이 있습니다.

宋 그러면 速記能力을 評價할 때는 무엇을 基準으로 합니까? 音節 (syllable)입니까, 單語 (word)입니까?

Ian 單語 (word) 위주입니다.

李 英國에서는 議會速記士를 어떠한 節次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까?

Jim 과거에는 新聞記者나 法院에서 일하는 速記士로 充員하여 왔으나 최근에 新聞記者는 녹음기를 사용하지 거의 速記를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 法院速記士들은 議會速記士의 業務量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議會勤務를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資質있는 速記士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Hansard 協會에서 선발해준 速記士 (大卒이상)를 채용하여 2年間 별도로 職場內訓練 (on-the-job training)을 시킨 후 정식 議會 速記士로 任用하고 있습니다.

이 職場內 訓練중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費用은 1년에 평균 100萬원 이상이 기 때문에 可能性있는 速記士 試補를 Hansard 協會로부터 선발하여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이 선발업무는 제가 擔當하고 있으며 訓練은 Church씨가 擔當하고 있습니다.

崔 業務量이 많다고 들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實務하나요? 또 가장 오래 速記를 한 記錄은 어느 정도인지요?

Jim 지금 현재 저는 速記業務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평균 17週 이상을 實務를 하고 있으며 바쁠 때는 議會 밖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이어서 아내를 볼 시간조차 없는 때가 있습니다 (웃음)

實務할 때는 10분씩 교대로 速記하며 저의 最長時間 速記 記錄은 52時間을 연속해서 쉬지 않고 速記를 한 것입니다.

宋 英國의 議會速記士의 社會的인 地位와 俸給 및 退職年齡 그리고 速記士들의 모임이 있는지요?

Ian 英國에서 議會速記士의 俸給은 月 90~100萬원 정도로 평균근로자임금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며 社會的으로도 상당히 높은 地位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議會速記士는 速記士 中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직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速記人의 친목단체는 현재 Institute of Shorthand-writers 라는 것이 있습니다.

洪 두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IPU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Jim 현재 IPU 관계 速記는 英文速記士 3名과 佛文速記士 3名이 담당하고 있으며 IPU 速記 관계는 英國의 Hansard에서 계속해서 支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IPU 速記는 全文을 記錄하는 것이 아니고 關係言語를 略記하는 형식(Summary Record)을 취하고 있으므로 英國의 議會速記錄(一名 Hansard)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IPU 速記는 速記라기보다는 要約記錄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IPU 에 두 번째 참가하고 있고 Church씨는 네 번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成 英國의 議會速記士의 男女의 構成比率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速記業務中 애로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Jim 7년 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7대3 정도로 훨씬 많았으나 지금은 6대4 정도로 女性增加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10분씩 교대할 때 正時에 끊어주지 않아서 가끔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동 웃음)

그리고 業務量이 많을 때는 Stenotypist 및 타자수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議員들 간에 또는 議員과 政府關係들 간에 一問一答을 하는 것을 기록할 때가 가장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德 일반적으로 英國內에서 1級速記士(first-rate)라면 어느 정도의 發言速度를 記錄할 수 있습니까?

Ian 보통 1級이라고 하면 320 word/分을 記錄할 수 있으며, 경연대회에 참가한 정도라면 400 word/分 정도를 記錄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뉴스는 물론 농구중계방송도 별 어려움 없이 기록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Gourley 씨가 예전에 참피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Gourley 씨의 速記實力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Church 씨가 낭독하고 Gourley 씨는 速記를 해서 번문해 보여 줌)

李 議會會議錄을 英國에서는 어떻게 發刊하고 있으며, 一般에 市販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밖에 다른 속기간행물은 없지요?

Jim 英國議會速記錄은 Hansard 라고 불리워지는데 會議翌日에 發刊되고 있습니다. 이 Hansard 는 시판된다기보다는 그 회의내용에 관심있는 사람이나 이익단체(Interest-group)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속기책자는 「메모」라고 불리는 잡지가 있고 速記入門書 速記辭典

그리고 속기부호로 쓰여진 古典小說 등 많은 책이 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崔 英國에서는 速記士들이 대체로 어디어디에서 勤務하고 있습니까?

Ian 대개 秘書業務에 있어서는 速記 打字 및 비서업무를 동시에 겸하여 하게 되어있고 특히 法院에서 많이 勤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런던에 있는 Old Bailey 라는 刑事法院에서는 速記士를 약 5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申 장시간 우리들의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두 분에게 大韓速記協會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짧은 기간이지만 韓國을 두루 살펴보고 英國에 돌아가시기든 韓國을 많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英國速記界에 관한 座談會는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英國 速記界와 韓國 速記界와의 유대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을 바라며 자주 연락을 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Jim 같은 의회속기사로서 異國에서 만나보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우의와 환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저희 의회를 찾아주시시오. 안내는 물론이고 숙소도 저희들 집으로 정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서신연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會 告 >

朴權欽會長님의 추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문을 추대하였습니다.

- 文甲頌고문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會長) - 1983. 6. 30
- 李琪詰고문 (晉州工業株式會社代表理事) - 1983. 6. 30
- 鄭成謀고문 (에리트住宅(株)代表理事) - 1983. 8. 17

IPU 落穂

- 편집위원회 -

* 1983. 10.2~10.13 서울에서 열린 제 70차 IPU총회에 종사했던 속기사들의 눈에 비친 이모저모.

IPU = 아이 피곤해유?

이번 서울 IPU총회 준비를 비롯해서 진행에까지 종사한 직원들은 사상 처음 맞이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초진장. 게다가 잦은 야근에 지쳐 이구동성으로 「아이피곤해유」를 연발. 또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통에 가지각색의 냄새가 진동 - 그들의 특이한 체취, 시거냄새, 향수냄새 IPU란 아이피곤해유인가 아이피휴우인가?

회의장은 아열대지방

열대지방에서 온 의원들은 한국의 가을날씨가 추운듯. 감기를 우려하여 常溫 25℃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 덕분에 온대지방의 의원들은 때아닌 여름을 겪어야 했으니. 감기 걱정도 좋고 25℃도 좋지만 의원님네들 한국의 가을날씨 언제나 맛보시려오?

풀밭의 식사

역시 한민족은 김치 먹는 민족. 구내식당에는 없는 김치를 찾아드는 한민족으로 인하여 외각의 한식당은 연일 만원사해. 급기야 전개되는 풀밭의 만찬. 김치와 된장찌개와 파아란 가을하늘.

天地형 디스크

IPU종사자 모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3층에서 갑자기 시커먼 피부의 8척 거한이 들어서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 그러나 재치있게 그 뜻을 간파한 모씨는 바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겠다. 이를 보고 끄덕이며 내려서는 검은 사나이. 이것이 바로 외국인과 함께 추는 신종 천지형 디스크.



가난한 천국 — 네팔

섭외담당이사 宋 基 喆

태국항공소속 727 육중한 몸이 우리를 태우고 카트만두공항에 착륙한 것은 6월 29일 11시였다. 비행기 문을 열고 트랩에 나서자 쏟아져 내린 햇살에 눈이 부시고 한증막같은 습막히는 열기가 온몸을 감싼다. 여름의 한 가운데인가 보다.

김포나 나리따 홍콩 방콕 등 웅장한 국제공항들에 눈이 익었던 나는 너무도 초라한 공항풍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확트인 활주로 저쪽으로 질푸른 초원이 펼쳐 있고 그 넘어 멀리 관악산보다 좀 높아보이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그림처럼 아름다운 벌판 한 가운데 비행기는 몇 대 보이지 않고 水色驪만한 2층벽돌집이 초라하게 서 있는데 그것이 카트만두국제공항건물이다. 마치 어느 시골 원행열차만 가끔 서는 간이정거장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우면서도 한가한 풍경이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라고 들었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외국인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관문을 이렇게 초라하게 놓아두다니... 뒤에 안 일이지만 네팔 정부는 ADB에서 900만불을 차관하여 85년 완공 목표로 공항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공자가 한국의 고려개발(주)이라고 하니 더욱 반가운 일이다. 이런 지구의 구석진 곳까지 한국의 기업체가 뚫고 들어와 큰 공사를 맡아 일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다.

하기야 6.25 동란 후인 1950년대 초반 해도 우리나라에 국제공항이 없어 여객기가 올 수 없었고 여의도 땅콩밭 사이의 간이활주로에서 미군수송기를 타고 외국을 나갔으며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얹어놓은 모양의 콘크리트 공항건물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불과 30년 전의 일이다.

우리는 이들보다 30년 선진하고 있구나 하는 조금은 우쭐한 기분으로 입국철차를 밟기 위하여 대사관에서 나온 A영사와 함께 공항건물에 들어서니 30여명 돼보이는 방에 두 곳의 세관검사대에서 입국자들의 가방을 조사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보는 위압적이고 산뜻한 세관원의 제복이 따로 없어서 누가 입국자이고 누가 세관원인지 금방 식별하기도 어려운데 여행객들의 가방은 풀어헤쳐져서 시장골목같이 어수선하다.

나는 쿠투염을 잘 기른 세관원 앞으로 우리 짐을 밀어놓았다. 한국에서 온

공식친선사절 일행의 가방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통관시켜주는 듯하더니 하필이면 내 가방 하나만 열어보겠단다. 내 가방에는 방문국에서 사용할 선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일 크고 무거워보인다 그래서 내 가방을 보자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나의 옷 인삼차 벵타이 전자 손목시계 몇개... 시계를 보더니 콧수염의 태도는 굳어졌다. 금수품이기 때문에 통관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짧은 영어로 설득하려고 들었다. 「이 시계는 상품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나라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고 온 대한민국 국회사절단이 너희 나라 국왕 수상 국회의장 등에게 줄 선물이다. 이중에 절반은 다른 방문국에 가서 사용할 것이니 통관시켜다오」 이렇게 말하면 쉽게 통관시켜 줄 줄 알았다. 그러나 콧수염은 「노」를 연발했고 옆에 있던 A영사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참 동안 육신자신 하는데 5m쯤 떨어진 곳에서 양팔을 끼고 서서 이쪽을 보고 있던 키작은 실력자인 듯한 사람이 우리쪽으로 왔다. 그는 공항세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의 설명을 듣고서야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다.

「네팔왕국에서는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선물을 받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계는 선물용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안된다. 다만 우리가 외부성에 확인한 결과 당신이 공식수행원의 일원이므로 절반만 가지고 가고 타국에서 사용할 절반은 우리가 보관할테니 출국시 찾아가라」

고 결론을 내려주었다.

그때서야 고위권력자의 선물임을 강조하면 쉽게 통관시켜줄 것으로 짐작했던 나는 뒷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굴이 달아올랐고 가난한 나라 초라한 공항의 키작은 세관장이 아주 크고 똑똑해 보였다. A영사에 의하면 작년 봄 북괴공관원의 시계밀수사건이 있는 후부터 통관절차가 강화되었다 한다.

네팔은 중공과 인도 사이에 동서로 길게 뻗은 산악내륙국이며 면적 14만 5천 인구 1,500만 힌두교가 국교이고 문맹률 80% 농민이 94% 1인당 GNP 140\$('80) 아리안족과 몽고계통의 다수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절대군주제 국가로서 비렌드라 국왕은 국가권력의 원천이며 헌법위에 군림한다. 헌법 제 20 조에 「네팔의 주권은 국왕에게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은 국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짐이 곧 국가이니라」라고 했던 옛날 임금님과 걸준다면 어느쪽이 더 셀까? 인공위성이 별나라를 가는 지금 세상에 아직도 절대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나라가 있다니...

의회는 무정당 단원제 (Rastrya Panchayat)로서 제한된 입법권 수상 선출 및 해임건의권 국정조사권이 있으나 국왕은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의회의 소집이 국왕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어 국왕이 의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의회는 열릴 수 없다.

이나라에서는 국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불충

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왕권이 도전 받을까 두려워 우민정책을 쓴다는 말이 있다. 80%의 국민이 문맹이 되도록…… 근래에 하나밖에 없는 카트만두 국립대학생들이 공부한 때문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데모를 해서 정부는 불안하다고 한다. 식자우환인가? 지금 2만명의 경찰과 군대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 왕궁은 튼튼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네팔은 은둔의 나라이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시풍이 이 지구를 거의 휩쓸어도 그 바람이 네팔국민의 의식속에 고루고루 전달되기에는 에베레스트산이 너무 높고 험한 탓일까? 아직도 태고의 정적이 깨지지 않고 있다.

북부산악은 툰드라 중부고원은 연중 온화하고 남부평야는 아열대 중부의 해발 1,500m분지에 인구 40만의 수도 카트만두가 있다.

카트만두는 멀리서 보면 고성처럼 아름답다. 2~3층 벽돌집이 얽은막한 언덕 위에 군데군데 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울창한 숲이 있어 오래된 전원도시 같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조금 실망한다. 창문은 거의 유리가 끼워있지 않고 아이들은 한 달은 목욕을 안한 것같이 보이고 문밖에는 먼지가 두껍게 끼여 유령의 집처럼 보이는 집이 많다. 구왕궁, 박물관, 시장 등이 있는 변화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관광객에게 즐기치게 쫓아다니면서 기념품을 파는 꼬마장사군들이 있는가 하면 먼건히 벽에 기대서서 즐리운 눈

으로 시간을 보내는 할일 없는 실업자도 많은 것 같다. 시장의 과일상회에는 망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 귀한 과일에 웬 파리떼가 그리도 많이 붙어 있는지. 교통경찰관 복장이 우리나라와 똑같기에 물어보았더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단다. 우리 물건은 팔아서 좋지만 경찰복장을 수입해서 입히다니…….

시내복판 차도에 소들이 느린 걸음으로 차 앞을 막으면 차는 클락소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길 비켜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소는 중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혹 운전운 잘못하여 소를 치이면 사람치인 것보다 벌금이 배 이상 무겁다니 가히 소의 천국이다.

카트만두주변의 농촌도 집은 2층 벽돌집인데 아래층에는 가축을 기르고 2층은 살림집이다. 벌레와 모기 낚새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거의 대부분의 집에는 변소가 없다. 자연의 숲과 논밭이 변소란다. 외국관광객들이 유명한 힌두교사원에 갔다가 무심코 한 발작 잘못 길에서 벗어나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한다.

국민의 94%가 농사를 짓지만 식량의 절대량은 부족하다. 잘 사는 일부 귀족계급은 런던 뉴델리 등으로 유학하고 하인을 수십명씩 거느리지만 많은 수의 농민들은 옥수수가루를 섞어서 만든 카레와 티 한 잔으로 끝내는 식사를 하루 두 끼 먹고 산다 그런데도 그들은 큰 불만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니 감탄할 일이다.

그러면 이들이 짙마른 중뿔속에서 잘 사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남의 물건

탐내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란 아주 특수한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몇년 전에 일본사람이 기증한 라디오방송국이 하나 있을 뿐 흑백 TV 방송국 하나 없는 현대 물질문명사회에서 뒤진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서로를 보면 웃고 인사하고 좀도독질은 간혹 하지만 살인강도질은 절대 안하고 나 먼저 출세하려고 경쟁자를 포함하지도 않고, (그래서 산업발달이 늦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노루처럼 섣량

한 눈동자를 갖고 행복하게 미소지으면서 살아간다. 거기에는 눈과 코와 입에 살기가 등등한, 누구를 보아도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로이타통신 네팔주재원이 이곳에서 10년을 살다가 본국으로 영전발령을 받았는데 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네팔을 떠날 수 없어 사직할 생각이라니 네팔인심이 정말 좋은가 보다.

해뜨는 이른 아침에만 관광용 비행기를 타면 볼 수 있다는 에베레스트산 비행을 구름건 날씨 때문에 보지 못하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

(속) (기) (수) (침)

건강 제일

11월 19일 제 7차 예결위원회는 야간회의가 심야회의로 이어지더니 드디어는 새벽회의로까지 이어져 20일 오전 5시 40분에야 산회, 11대국회 들어 최장시간의 마라톤회의를 기록했는데…….

0시가 지나자 그 동안 쌓인 피로에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듯 한 사람 두사람씩 책상에 엎드리거나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하기 시작, 심지어는 코까지 골면서 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P모씨만은 끄떡없이 그대로 앉아서 밀린 원고를 정리함으로써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과시.

— 정말 그 건강이 부럽소이다.

침진동 해장국 맛

새벽회의가 끝난 후 J모양은 같은 방향인 C의원님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시장기를 느끼신 듯 해장국을 먹고 가자는 양해 비슷한 단정의 말씀에 사양도 못하고 침진동으로 직행.

비좁은 자리에 앉아서 귀찮고 처음 먹어보는 그 맛은 뽕뽕 야릇했지만 일부러 차를 돌려 집앞까지 바래다 준 그 친절에 감칠 맛으로 길이 기억하리라고.

○ 소식 란 ○



- 第32回 冬季無料速記講習(83年 1月 11日~1月29日)과 第33回 夏季無料速記講習(7月 18日~8月 6日)이 서울의 東邦, 高麗 兩學院에서 各各 實施되었는바 그 受講現況은 다음과 같습니다.

(冬 季)

언어 \ 내용	접수인원 (명)	수료인원 (명)	수료율 (%)
국 어	543	370	68
영 어	155	118	76

(夏 季)

언어 \ 내용	접수인원 (명)	수료인원 (명)	수료율 (%)
국 어	228	172	75
영 어	68	56	78

- 第12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가 83年 5月 22日 韓國道路公社運動場에서 開催되었읍니다.

○ 轉 補

1. 吳聖均회원; 建設委員會立法審議官 → 議事局長 (83. 2.11)
2. 金永善회원; 管理課長 → 經濟科學委員會立法調查官 (83. 2.14)

3. 李東一회원 ; 教育厚生擔當官 → 管理課長 (83. 2.14)
4. 徐秉運회원 ; 運營委員會立法調查官 → 國會圖書館海外資料課長 (83. 2.14)
5. 宋基喆회원 ; 儀典 1 擔當 → 速記 4 擔當 (83. 2.17)
6. 金基英회원 ; 速記 4 擔當 → 儀典課儀典 1 擔當 (83. 2.17)
7. 姜宗遠회원 ; 速記課編輯 2 擔當 → 國際協力課 2 擔當 (83. 2.17)
8. 李泰鎬회원 ; 速記課 → 內務委員會 (83. 2.18)
9. 李潤和회원 ; 議事課 → 文公委員會 (83. 2.18)
10. 玄柄高회원 ; 施設課 → 運營委員會 (83. 2.18)

○ 昇 進

1. 權龍太회원 ; 資料編纂課長 → 文教公報委員會立法審議官 (83. 2.11)
2. 朴大成회원 ; 速記課 → 資料編纂課史料擔當 (83. 2.17)
3. 河良培회원 ; 速記課 → 國會圖書館資料發刊課發刊 2 擔當 (83. 2.17)
4. 洪淳寬회원 ; 速記課 → 速記課編輯 2 擔當 (83. 2.17)

○ 新入會員

83. 6.12 施行된 國會速記職公務員採用試驗에서 孫淑子 (議會), 朴今仙 (議會) 李俊太 (東邦), 吳敬愛 (高麗), 郭桂安 (東邦), 韓順德 (東邦) 6 名이 合格하였으며 本協會 會員으로 加入하였음.

○ 海外出張

1. 姜瑞弘회원 (83. 3.15 ~ 3.26); 東南亞各國議會 및 議會圖書館시찰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일본)
2. 姜宗遠회원 (83. 6.25 ~ 7.20); 韓 · 세네갈議員親善使節團수행 (세네갈, 시에라리온 -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경유)
3. 金永善회원 (83. 6.27 ~ 7.13); 韓 · 가봉議員親善協會阿洲諸國訪問團수행 (보츠와나, 가봉 - 케냐경유)
4. 宋基喆회원 (83. 6.27 ~ 7.13); 議員親善協會西南亞細亞訪問使節團수행 (버마, 스리랑카 - 태국,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경유)
5. 申世華회원, 趙永昌회원 (83. 7.12 ~ 7.25); Intersteno 第 35 次總會參席 (스위스루체른)
6. 崔滉洙회원 (83. 7.21 ~ 8.3) ; '83Capacity nationWeek 賑起大會參席 (臺灣 홍콩, 日本경유) |
7. 全海成회원 (83. 8. 9 ~ 9. 1); 醫療保險制度시찰團수행 (서독, 英國, 荷蘭, 필리핀, 日本 - 파리경유)
8. 金仁寧회원 (83. 8.13 ~ 9. 4); 國際青年육낙영大會參席 (臺北 - 홍콩, 日本경유)
9. 李龍洙회원 (83.11.15 ~ 12. 3); 建設業體시찰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서독, 네덜란드, 英國)

○ 表 彰

- 姜瑞弘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 (83. 1. 4)
尹炳直회원 ; 국회의장표창 (83. 1. 4)
姜宗遠회원 ; 국회의장표창 (83.10.16)
李承皙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 (83.12. 7)
朴順必회원 ;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공로상 (83.12.27)
黃寅河회원 ; 대통령표창 (84. 1. 4)
申熙東회원 ; 국회사무총장표창 (84. 1. 4)
徐秉運회원 ; 근정포장 (84. 1. 4)
崔錫模회원 ; 근정포장 (84. 1. 4)
金基英회원 ; 근정포장 (84. 1.13)
宋基喆회원 ; 근정포장 (84. 1.13)

○ 會 員 動 靜

(1) 死 亡

張基泰회원 (83. 5. 3)

(2) 復 職

安基喆회원 (83. 3.25) 羅性洙회원 (83. 6.20)

申建鉉회원 (83. 4.18) 金珠成회원 (83. 7.26)

(3) 辭 職

羅性洙회원 (83.10. 1) → 柳壽恒議員秘書官

(4) 結 婚

高敬孝회원 (83. 3.26) 鄭明順회원 (83. 5.14)

鄭大吉회원 (83. 5. 7) 孫在玉회원 (83. 6.11)

(5) 受 賞

曹永琦회원 ; IPU總會 非從事職員研究課題
獎勵賞 受賞 (83.11.18)

INTERSTENO 규 약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tenography
and Typewriting)

1 조 이 조직은 INTERSTENO(국제속기타자연맹)라 칭한다.

(목적)

- ① 각국의 속기사와 타이피스트 결속
- ② 전문적 성격의 정보의 취합·교환·홍보
- ③ 회원간의 개인적인 단결과 대회개최
- ④ 국제적인 속기대회와 타이프경연대회 개최
- ⑤ 전문적인 공동연구의 추진
- ⑥ 직업적 단체의 정신적, 물질적인 이익의 옹호

본 연맹은 여하한 정치·종교적 성격을 띤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조 (회 원) 연맹의 회원은 각국의 속기사와 타이피스트들의 전국단체(national group) (이하 단체회원으로 칭함)를 회원으로 한다.

한 국가에는 오직 1개의 단체회원이 존재한다. 각 단체회원은 재량으로서 단체를 조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국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체제나 추세등을 대변하여야 한다.

연맹은 아직까지 단체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단체회원의 형성을 고무·촉진한다. 단체회원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의장단은 개인이나 사적단체로 하여금 투표권 행사없이 연맹의 활동에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단체회원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 연맹은 속기와 타이프의 진흥에 힘써온 개인회원(개인·학교·회사·공장)을 가입시킬 수 있다. 이들의 가입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들은 연맹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나 토론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조 (본 부) 연맹은 「본」에 법적인 주소를 두고 연맹의 등록부에 등록한다.

4 조 (조 직) 연맹에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 ① 연맹총회
- ② 중앙위원회
- ③ 의장단(Board)
- ④ 사무처
- ⑤ 회계감사위원회

5 조 (가 맹) 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은 중앙위원회에 서식을 갖추어 신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총회는 연맹에 특별한 공헌을 한 특정인에게 명예회원의 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6 조 (탈 퇴) 탈퇴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은 그해 연도말 3월 전에 중앙위원회로 서식을 갖추어 통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위는 2년이상 분

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단체회원을 제명할 수 있고 연맹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단체회원도 제명시킬 수 있다.

- 7 조 (총회) 총회는 단체회원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며 연맹의 최고기관으로서 통상 국제대회시 소집된다. 총회는 최소한 3월전에 소집통보되어야 하며 의제는 소집통보시 알려주어야 한다. 총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어야 하며 결정사항은 문자로 기록하고, 이 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결정사항은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결정된다.

각 단체회원은 3명의 대표를 보낸다. 다만 단체회원의 국가가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500만명당 1명씩 최고 12명까지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상기대표외에 단체회원은 기타의 대표를 총회에 보낼 수 있으나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표 1명당 한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대표의 출석인원에 관계없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정관 16 조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단체회원을 구성하지 못한 국가의 대표들도 총회에 참석하고 중앙위에서 정한 조건하에서 연맹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8 조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단체회원에 의해서 선출된 1개국당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단(Board)이나 5개국 이상의 단체회원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가능한 한 해마다 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동위원회의 기능은 총회를 준비하고, 연맹활동을 계획하고 경연대회의 규칙을 만들고 의장단을 감독·보조하며, 연맹의 모든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을 연구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예: 비공식적인 정간물의 편집) 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동위원회는 의장단의 임원을 지명한다. 동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 9 조 (의장단) 의장단은 의장·5인의 부의장·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연맹의 집행기관이다. 의장단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의사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사망·질병·은퇴의 경우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의장단은 후임자를 선임한다.

의장은 다음 총회 개최지의 단체회원의 회원중에서 선출되며 그곳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의 개최지의 단체회원의 회원중에서 선출된다.

만일 단체회원이 의장직을 거부할 경우,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10 조 (사무국) 사무국의 임무는 연맹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행정적인 임무 수행, 연맹의 재정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의장과 상의하여 중앙위원회와 총

회의 의제를 작성한다. 사무국은 중앙위에 사무국의 활동사항을 알려준다.

11 조 (회계감사위원회) 총회는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의장단에 속하지 않는 3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동위원은 연속하여 재임될 수 없다.

12 조 (정기총회) 총회는 2 내지 3년마다 열리며 각종 국제적인 행사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특별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단에 의해 결정된다.

13 조 (재 정) 연맹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은 다음과 같다.

- ① 분담금
- ② 출판수입, 구독료
- ③ 보조금, 기부금, 유증

단체회원은 그들 회원에 의해서 총회에서 결정되는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4 조 (경비의 지출) 의장과 사무총장의 여비와 숙박비는 연맹이 부담하고 기타 의장단의 임원과 중앙위의 임원의 경비는 단체회원들이 부담한다.

의장이나 사무총장이 대회조직위원회의 임원일 경우, 그해의 대회기간동안의 경비는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심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의 개인의 경비는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한다.

15 조 연맹은 오직 그 자본에 한해 재정적인 의무를 지며, 단체회원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16 조 현존하는 규약은 의장단이나 5개국 이상의 단체회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서 개정된다. 임시총회는 단체회원의 4분의 3의 출석으로 유효하다. 규약개정은 참가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17 조 연맹이 해산되는 경우 총회는 자산의 처분과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8 조 단체회원은 현존하는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비준을 조건으로, 중앙위원회에 결정사항을 위임한다.

19 조 처음의 규약은 1955년 8월 1일 모나코에서 작성되었고 최근의 개정안은 1979년 7월 26일 베오그라드에서 채택되었고, 1983년 7월 20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정되었다.

會 務 日 誌

-1983 年度-

- 1. 11-29 第 32回 冬季速記無料講習
- 2. 2 第 118次 理事會
- 3. 3 法人定期報告書提出(文公部)
- 3. 21 第 119次 理事會
- 4. 10 會報發送
- 4. 23 國家技術資格檢定試驗(타자 4級)實施
- 5. 20 第 12回 體育大會(195名 참가)
- 7. 14-25 第 35次 國際速記打字聯盟總會參加
- 7. 18-8.6 第 33回 夏季速記無料講習
- 8. 11 第 120次 理事會
- 9. 6 第 35次 國際速記打字聯盟參加報告(文公部)
- 12. 27 第 121次 理事會
大韓速記協會 Intersteno 加入 自祝宴

第16回 定期總會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1. 日 時 : 1983年 2月 11日(金) 午後 18:30

2. 場 所 : 汝矣島 蠶絲會館 先驅者싸롱

3. 出 席 : 在籍會員 119名中 85名 出席

4. 附 議 案 件

1) 1982年度 決算承認

2) 1983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承認

3) 任員改選

4) 其 他

5. 會 務 報 告

1. 이사회 운영

제 116 차부터 118 차까지 세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정기보고, 회장 취임 승인, 방학강습, 자격검정, Intersteno 가입에 관한 건등 협회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논의 의결하였음.

2. 섭외 활동

Intersteno (국제속기타자연맹)과 교류하여 각국의 속기계 현황등을 파악하였고 동 연맹에의 가입을 위하여 동 연맹 사무총장과 일본 속기협회와 수차 서신을 교환한 결과 금년 7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35 차 총회에 당 협회의 가입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올리기로 82.6월의 중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3. 회지 발간

83년 1월 31일자로 속기계 제 23호를 발간하였음.

4. 제 11회 전국 속기인 체육대회 개최

일 시 : 82.5.16 (일)

장 소 : 국회 종합운동장

참가인원 : 회원, 가족, 내빈등 250명

5. 속기 방학 강습

기 간	장 소	법 식	인 원	수료인원
동 계 82.1.11-1.30	동방학원 고려학원	동 방 식 고 려 식 Greeg식	국어 393 영어 167	국어 300 영어 105
하 계 82.7.19-8.7	동방학원 고려학원	동 방 식 고 려 식 Greeg식	국어 246 영어 125	국어 185 영어 68

6. 자격 검정

회 수	일 자	응 시 자	합 격 자
20 회	82.5.23	146	59

* 1982.9.22 일부로 한국 직업훈련 관리공단으로 이관하였음.

6. 議決된 案件

(1) '82 결산서

세 입

예 산 과 목 관 항 목	'82 년도 예 산액	'82 년도 결 산액	증 △ 감	산출근거	비 고
기 본 수 입	1,036,000	626,000	△ 410,000		
월 회 비	1,026,000	623,000	△ 403,000		
입 회 비	10,000	3,000	△ 7,000		
사 업 수 입	4,900,000	5,341,000	441,000	국어 639×5000 = 3,195,000	
방 학 강 습	4,000,000	4,947,000	947,000	영어 292×6000 = 1,752,000	
자 격 검 정	900,000	394,000	△ 506,000		
찬 조 금	500,000		△ 500,000		
잡 수 입	800,000	1,290,218	490,218	정기예탁금이자, 수수료, 광고수입 등	
이 월 금	4,540,524	4,540,524	0		
계	11,776,524	11,797,742	21,218		

세 출

예 산 과 목 관 항 목	'82 년도 예 산 액	'82 년도 결 산 액	증 △ 감	산 출 근 거	비 고
회 의 비	916,000	689,400	△ 226,600		
정 기 총 회	700,000	501,800	△ 198,200		
기 념 품	300,000	161,000	△ 139,000		
식 대	300,000	253,800	△ 46,200		
기 타	100,000	87,000	△ 13,000		
회 의 비	216,000	187,600	△ 28,400		
이 사 회	200,000	187,600	△ 12,400		
자 격 심 위	7,000		△ 7,000		
연구·편집비	9,000		△ 9,000		
경 상 비	273,000	224,730	△ 48,270		
사 무 용	123,000	74,730	△ 48,270		
사 무 용 품	24,000	19,950	△ 4,050		
인 쇄 비	60,000	15,000	△ 45,000		
통 신 비	24,000	29,000	5,780		
필 경 료	15,000	10,000	△ 5,000		
활 동 비	150,000	150,000	0		
수 용 비	30,000	18,399	△ 11,601		
공 과 금	30,000		△ 11,601		
사 업 비	5,676,000	3,225,150	△ 2,450,850		
방 학 강 습	3,130,000	3,130,000	△ 51,600		
임 대 료	160,000	150,000	△ 10,000		
교 재 대	450,000	1,180,000	730,000		
강 사 료	560,000	490,000	△ 70,000		
광 고 료	1,800,000	1,064,400	△ 735,600		
인 쇄 비	80,000	87,000	7,000		
접 수 수 당	60,000	77,000	17,000		
사 례 비	20,000	30,000	10,000		
자 격 점 정	712,000	146,750	△ 565,250		
용 지 및 인 쇄	30,000	4,500	△ 25,500		
광 고 료	450,000		△ 450,000		

출제수당	18,000	12,000	△ 6,000	
감독수당	150,000	111,250	△ 38,750	
접수수당	24,000	4,000	△ 20,000	
채점수당	40,000	15,000	△ 25,000	
기타				
속기경기대회	1,734,000		1,734,000	
임대료	10,000		10,000	
인쇄비	20,000		20,000	
광고료	900,000		900,000	
출제수당	9,000		9,000	
감독수당	25,000		25,000	
채점수당	100,000		100,000	
상품대	550,000		550,000	
준비비	20,000		20,000	
선전비	100,000		100,000	
섭외비	685,000	73,160	△ 611,840	
섭외활동	150,000	66,160	△ 83,840	
회지발간	535,000	7,000	△ 528,000	
편집비	20,000		△ 20,000	
원고료	100,000		△ 100,000	
인쇄비	400,000		△ 400,000	
발송	15,000	7,000	△ 8,000	
연구비	200,000	50,000	△ 150,000	
속기학술	200,000	50,000	△ 150,000	
연구				
자료수집비	100,000	50,000	△ 50,000	
인쇄비	50,000		△ 50,000	
연구비	50,000		△ 50,000	
관공비	300,000	280,000	△ 20,000	
예비비	3,596,524	1,436,685	△ 2,159,839	체육대회보조
이월금	4,540,524	5,800,218	1,259,694	등기비 적금
계	11,776,524	11,797,742	21,218	

감 사 보 고 서

구분 \ 년도	1981 년 도	1982 년 도	증 감
총 세 입	11,167,692	11,797,742	630,050
총 세 출	6,627,168	5,997,524	629,644
이 월 금	4,540,524	5,800,218	1,259,694

정관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83년 2월 10일 현재 본 협회 재정현황을 감사한 결과 결산서와 상위없음을 보고합니다.

1983. 2. 11.

감 사 송 기 철
" 고 태 중

<2> 1983 년도 사업계획

사 업 명	목 표	예 산	비 고
1. 방학이용 속기강습	대상: 남녀대학생 및 일반인 기간: 3주간 회수: 2회 (동계, 하계)	4,858,000	
2. 자급학교 및 사회단체 속기강습	실업계고교, 대학 또는 일반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0,000	
3. 속기 경기 대회	대상: 전국 속기인	1,734,000	
4. 속기학술 연구	1. 속기용어집 발간 2. 기계속기 연구 3. 속기법식 개량	300,000	
5. 속기계 발간	속기문화의 창달	550,000	
6. 국제속기타자연맹 가입	금년 7월중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35차 총회에서 가입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각국 속기계와 교류가 시작되어 본협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1,500,000	
7. 자격 심사활동	자격검정 업무는 이관되었으나 자격심사 위원회의 활동은 계속		
8. 속기인주소록보완	81.9월 이후 주소나 직장이 변동된 회원은 연락바람		

<3> 1983년도 예산(안)

세 입

예산과목 관항	82년도 예산액	83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비고
기본수입	1,036,000	1,036,000			
월회비	1,026,000	1,026,000			
입회비	10,000	10,000			
사업수입	4,900,000	5,600,000	700,000	국어 5,000×700명 = 3,500,000	
방학강습	4,000,000	5,600,000	1,600,000	영어 7,000×300명 = 2,100,000	
자격검정	900,000		△ 900,000		
찬조금	500,000	500,000			
잡수입	800,000	800,000		정기예탁금수입, 광고수입	
이월금	4,540,524	5,800,218	1,259,694		
계	11,776,524	13,736,218	1,959,694		

세 출

예산과목 관항	82년도 예산액	83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비고
회의비	916,000	1,009,000	93,000		
정기총회	700,000	800,000	100,000		
기념품	300,000	200,000	△ 100,000		
식대	300,000	500,000	200,000		
기타	100,000	100,000			
회의비	216,000	209,000	△ 7,000		
이사회	200,000	200,000			
자격심위	7,000		△ 7,000	100,000×2회 = 200,000	
연구위	9,000	9,000		600원×5인×3회 = 9,000	
편집위					
수용비	30,000	30,000			
공과금	30,000	30,000			
국제속기타자연맹	100,000	1,600,000	1,500,000	동연맹총회참가 활동	
년회비	100,000	100,000			
가입활동비	100,000	1,500,000	1,500,000		
경상비	273,000	310,000			

사 무 비	123,000	160,000	37,000	2,500원 × 12월 = 3,000
사 무 용 품	24,000	30,000	6,000	5,000원 × 12월 = 60,000
인 쇄 비	60,000	60,000		
통 신 비	24,000	50,000	26,000	5,000원 × 10회 = 50,000
필 경 료	15,000	20,000	5,000	5,000원 × 4회 = 20,000
활 동 비	150,000	150,000		
사 업 비	5,676,000	6,692,000	1,016,000	국어 1,250원 × 600 = 750,000
방 학 강 습	3,130,000	4,858,000	1,728,000	영어 500원 × 600원 = 300,000
임 대 료	160,000	200,000	40,000	50,000원 × 3 × 2 = 300,000
교 재 대	450,000	1,050,000	600,000	40,000원 × 5 × 2 = 400,000
강 사 료	560,000	700,000	140,000	500,000 × 2개지 × 2회 = 2,000,000
광 고 료	1,800,000	2,000,000	200,000	7,000 × 6월 × 2회 = 84,000
인 쇄 비	80,000	80,000		
접 수 수 당	60,000	84,000	24,000	12,000원 × 2회 = 24,000
사 례 비	20,000	24,000	4,000	
학교, 사회단체 속기 강습	100,000	100,000		
보 조 비	100,000	100,000		
자격 검정시험 용지, 인쇄	712,000		△ 712,000	82.9월 한국직업 훈련 관리공단 이관
광 고 료	30,000		△ 30,000	
출 제 수 당	450,000		△ 450,000	
감 독 수 당	18,000		△ 18,000	
접 수 수 당	150,000		△ 150,000	
취 입 비	24,000		△ 24,000	
속기 경기 대회	40,000		△ 40,000	
속기 경기 대회	1,734,000	1,734,000		50,000원 × 2 = 100,000
입 대 료	10,000	10,000		3,000 × 3 = 9,000
인 쇄 비	20,000	20,000		5,000 × 5 = 25,000
광 고 료	900,000	900,000		5,000 × 20인 = 100,000
출 제 수 당	9,000	9,000		대상 1인 150,000
감 독 수 당	25,000	25,000		금상 2인 100,000 × 2 = 200,000
채 접 수 당	100,000	100,000		

	상 품 대	550,000	550,000		은상 2인 50,000
	준 비 비	20,000	20,000		× 2 = 100,000
	선 전 비	100,000	100,000		동상 2인 30,000
업	외 비	685,000	700,000	15,000	× 3 = 60,000
	외 활 동	150,000	150,000		장려상 2인 20,000
회	지 발 간	535,000	550,000	15,000	× 2 = 40,000
	편 집 비	20,000	20,000		TV, 라디오, 신
	원 고 료	100,000	100,000		문 등
	인 쇄 비	400,000	400,000		
	발 송 비	15,000	20,000	5,000	
	사진 및 재료		10,000	10,000	
연	구 비	200,000	300,000	100,000	
	속기 학술 연구	200,000	300,000	100,000	
	자료수집비	100,000	200,000	100,000	
	인 쇄 비	50,000	50,000		
	연구 수 당	50,000	50,000		
관	공 비	300,000	300,000		
예	비 비	3,596,524	2,795,218	△ 801,306	
	계	11,776,524	13,736,218	1,959,694	

편 집 후 기

국내외에서 굵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는 열리고 국회가 열릴 때마다 속기인들은 바빠진다. 특히 사건사고로 점철되었던 1983 년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도 바쁜 한 해였다. 그 와중에서 원고를 모으려니 시간은 급한데 글은 보이지를 않고…….

그래도 글 구걸하러 쫓아다닌 발자국이 스위스에도 네팔에도 IPU속의 영국에도 끈고루 미치게 되었으니 보람은 있다고 할까.

- 宋 -

한국速記史에 길이 빛날 INTERSTENO에의 가입!

그러나 잠시 기쁨을 접어두고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속기계의 발전이 선결과제임을 아무도 부인치 못하리라.

이번 호에는 INTERSTENO가입을 축하함과 아울러 묻혀 있는 速記史의 자료들을 발굴하고자 그 첫시도를 하여 보았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바란다.

- 杓 -

일년에 딱 한번 나오는 책!

연말이면 흥여 치르듯 겪어야 하는 원고마감작전 - 넉넉치 못한 예산으로 원고로 한번 후하게 드리지도 못하면서 재촉만 하니 그저그저 송구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 珠 -

速記界에도 밀려드는 제 3의 물결을 호흡하면서 삶을 사랑하기에 사는 것을 바라듯 速記界의 생생한 삶을 자랑하고프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선물되기를 빌며 감사드린다.

- 永 -

을 겨울은 유달리 춥다.

달빛마저 얼어붙어 가뜩이나 시린 가슴들을 퐁퐁 여미게 하고 항상 바쁜 발걸음들을 더욱 종종거리게 한다. 그런 중에 엮어 본 「速記界」이기에 미숙한 점이 많겠으나 머지 않아 웃으며 다가올 따뜻한 봄같은 눈길로 보아주시기를……

- 蘭 -

속 기 요 금 안 내

1982. 5. 1 시행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100,000원
녹 음 재 생	"	110,000원
전 문 분 야	"	130,000원
외 국 어 속 기	"	150,000원
요 점 속 기	"	8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중 소지자에 한한다.

사 단 대 한 속 기 협 회 법 인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1
(국회사무처 속기과내)
전화 7802 - 2471 ~ 6

速 記 界

第 24 號

1984 年 1 月 28 日 發行

發行人	朴	權	欽
編輯人	宋	基	喆

社 團 法 人 大 韓 速 記 協 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Tel. 7802 - 2471 ~ 6

非 賣 品

발

축

전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65) 4266

* 創立 36 周年

- ◇ 우리나라 最古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 1. 本科 4 個月
- 1. 研修科 1 年
- 1. 資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1. 本科 3 個月
- 1. 研修科 6 個月
- 1. 資格 高卒以上

修了後

立法府, 法院,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事, 留學時的筆記 및 아르바이트 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高麗速記學院

392 ~ 5373

春川 3-3770 清州 4-5090 大田 72-3449 麗水 2-9356

- * 國家技術資格試驗對備 및 國會速記士 對備班
- * 國會, 各行政部處, 言論報道機關, 情報機關, 外國人商事, 外國銀行, 移民, 留學 및 副業 等.
- * 各種株主總會 會議錄作成 및 錄音 Tape 錄取
- * 通信教育 (郵票 5 枚) ... 西大門區 忠正路 3 街 189 (信元빌딩 402 號)
- * 速記 · Hearing · 비데오 - 3 位 1 體教育.